

코리아 문학 통일과 디아스포라 담론의 욕망

— 연변 문예지의 매체사적 쟁점

金成洙*

- | | |
|----------------------|--|
| I. 서론: 연변 조선족문학과 문예지 | 디아스포라문학의 정체성 |
| II. 연변 문예지의 통시적 계보 | IV. 결론: 연변 문예지를 통해 본 '통일,
디아스포라'문학론의 자기비판 |
| III. 연변 문예지의 쟁점과 | |

• 국문초록

이 글은 연변 조선족 문예지의 매체사적 쟁점 분석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남북 한문학의 '통일' 의제가 가진 당위성을 반성하고 '디아스포라 문학' 담론이 한국문학의 영토를 넓히려는 욕망에서 과연 자유로운지 탐색한다. 대안으로 (남)한국-(북)조선과 코리언 디아스포라 및 코리아어권(Koreanphone) 문학의 상호 동등한 소통을 제안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문예지 『연변문예』(1951), 『천지』(1985), 『연변문학』(1998)의 통시적 계보와 쟁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잡지 미디어 콘텐츠의 매체사적 쟁점을 공식적으로 분석하여 조선족문학의 민족지적 정체성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연변 문예지가 사회주의적 선전지로 출발했지만, 연변의 민족문화유산 교양과 조선족의 문학적 정체성, 그리고 친북한에서 친남한으로 대외관계가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변 문예지의 정체성은, 중국 당국의 정책 선전지라는 기본 전제 위에 '(중)조선족-(북)조선-(남)한국'을 문화적으로 소통하는 창구 구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족의 문학적 독자성이다. 가령 김일성이 창작했다는 북한의 혁명가극 <피바다>와 『연변문학』(1959)에 수록된 까마귀의 촌극 대본 「혈해지창」 논쟁이 좋은 예이다. 이를 간과하고 조선족문학을 코리아문학 남북의 통일과 디아스포라 담론으로 통합하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글쓰기교수

려는 것은 일종의 서울중심주의적 욕망의 산물이기에 반성이 필요하다.

주제어 : 연변 조선족문학, 문예지, 『연변문예』, 『천지』, 『연변문학』, 매체사적 쟁점,
코리언 디아스포라 문학, 통일문학, 서울중심주의, 「혈해지창」

I. 서론: 연변 조선족문학과 문예지

이 글은 1951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계속 간행되고 있는 연변 조선족의 한글 문예지의 매체사적 쟁점 분석을 목표로 한다. 그를 통해 코리아 남북 문학의 ‘통일’ 의제가 가진 당위를 반성하고 ‘디아스포라 문학’담론이 ‘한국문학’의 영토를 넓히려는 욕망에서 자유로운지 탐색한다. 나아가 (남)한국-(북)조선과 전 세계 코리언 디아스포라 및 코리아어권(Koreanphone, 한국어권)¹⁾ 문학의 상호 소통을 대안으로 한 코리아 문화사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구체적 사례로 연변 문예지 『연변문예』(1951), 『천지』(1985), 『연변문학』(1998~)의 매체사와 문학적 쟁점을 분석한다. 연구대상은 『연변문예』(1951, 1954~1956, 1974~1984), 『아리랑』(1957~1958), 『연변문학』(1959~1961), 『연변』(1961~1966), 『천지』(1985~1997) 영인본과²⁾ 『연변문학』(1998~2021) 7백여 호이다.

그런데 과묵한 탓인지 연변 문예지 7백 호를 연구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우리 학계에 영인본 형태로 자료가 소개된 것이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인데도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나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연변문예』-『천지』-『연변문학』’의 통시적 매체사를 개괄적으로 검토한 논문³⁾의 후속편으로, 문예지의 매체사적 쟁점을 통시적 공시적 관점으로 나

1) ‘Koreanphone’은 한국어권을 뜻하지만 (북)조선의 조선어와 해외동포의 한글 콘텐츠까지 포괄하기 위하여 ‘코리아어권’을 쓴다. Koreanphone 개념은 Sinophone(華語語系), Anglophone(英語語系), Francophone(法語語系)에서 착안하였다. 다만 최근에는 ‘Against Sinophone’처럼 ‘종주국’의 중심성에 대항하는 경향(스수메이)도 있어 주목된다. 이해영·임명걸, 「방법으로서의 코리아어 어계 문학(Koreanphone) 연구: 華語語系文學 담론이 주는 계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7집, 한국현대문학회, 2019; 스수메이, 고혜림 외 역, 『시각과 정체성-태평양을 넘어서는 시노폰 언술』, 학고재, 2021. 참조.

2) 연변 문예지 전체를 『천지』 제하의 영인본으로 편찬한 전후 사정은 장지민(1993년 당시 『천지』 총편집인), 「머리말」, 『천지』 영인본, 대전: 대훈서적, 1993. 참조.

3) 김성수, 「연변 문예지의 역사와 ‘코리아 문학’ 재구성」, 『국제한인문학연구』 29, 국제한인문학회, 2021.4. 11~39면. 기존 논문의 후속편인 이번 글은 국제한인문학회 제21회 전국학술회의(전체 주제: 2000년대 이후 디아스포라문학의 세대교체와 북한문학의 현황, 2021.7.3. 가상회의) 기조 발표문을 수정한 것이다. 원래 AAS(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북미아시아학회) 2021 Annual Conference(Virtual)의 “Literature and Literary Studies of the Korean Diaspora in Yanbian” Session에서 발표(2021.2.20~3.23)한 “The Media History of Literary Journals in Yanbian and the

뉘 논의하도록 한다. 문예지 콘텐츠를 쟁점별 주제별로 분석하고 나아가 (남)한국-(북)조선 문학과와의 관련성도 찾아본다. 역대 문예지의 매체론적 논의를 펼치되, 일반 역사로 미디어 역사를 분석하는 연역적 접근이 아닌, 잡지 텍스트의 통시적 분석에서 일반 역사를 유추하는 귀납적 접근을 한다.⁴⁾ 이미 잘 알려진 연변 조선족의 일반 역사의 정보⁵⁾를 『연변문예』 『천지』 잡지의 미디어 콘텐츠 분석에 적용하는 연역적 접근법이 아니라, 잡지의 미디어 콘텐츠 특히 문자 텍스트를 분석하여 일반 특징을 추출하는 귀납적 접근법으로 논의한다.

『연변문예』는 1951년 창간되었다가 1966년 문화혁명으로 폐간되었다. 1974년 『연변문예』로 복간되고 1985년 『천지』로 개칭되어⁶⁾ 1997년까지 간행되었다. 1998년 『연변문학』으로 제호가 바뀌어 현재 통권 723호(2021.6)까지 간행되고 있다. 이에 연변 문예지 70년의 매체사적 쟁점 분석을 통해, 조선족문학의 정체성을 코리아문학 ‘통일’과 ‘디아스포라 및 코리아어권(Koreanphone)’ 담론의 문제의식 아래 살펴보겠다.

Opportunity to Restructure the Korean Literatures i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를 대폭 보완한 전후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1xYZ-DVvHh0>) Barbara Wall(코펜하겐대), Jerome De-wit(튀빙겐대), Dafna Zur(스탠포드대), 최민(연변대), 최현식(인하대), 방민호(서울대), 황호덕(성균관대)님께 감사드린다.

- 4) 가령, “조선족은 세계 한인 사회의 일부로서 한중일 교류 협력에서 가교 역할을 하거나 남북관계에서 중립 입장을 견지하면서 양측 간 문화충돌에서 우호적 완충지대이며, 북한 주민들이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일반적 통념 아래 연변 문화도 그러리라는 접근방식이다. 2010년 8월 재외한인학회, 조선족연구학회의 ‘한·중·일 협력시대 조선족의 역할’이란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족, 남북한 문화충돌의 완충지대 역할”(연합뉴스, 2010.08.23.) (<https://www.yna.co.kr/view/AKR20100823125400069>) 참조.
- 5) 『연변조선족자치주 개황』,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4; 조성일, 권철, 『중국조선족문학사』, 연변: 연변인민출판사, 1990 등의 예.
- 6) 필자의 전개 논문에서 1974년 4월 『천지』가 창간되었다고 한 것은 『천지』 총편집인인 장지민이 편찬한 『천지』 영인본(대훈사적, 1991)만 보고 잘못 쓴 것이다. 영인본의 표지와 목차면에는 분명 『천지』로 인쇄되어 있지만, 실제로 본문에는 『연변문예』 발간사가 있다. 또한 1985년 1월호의 잡지 ‘개칭’에 즈음한 권두 기획과 통권 500호 기념호(2002.11)의 역대 표지사진을 통해 『연변문예』를 확인하였다. “조선문판 종합성적 문예간행물인 『연변문예』가 오늘 독자들과 대면하게 된다.” 미상, 「발간사」, 『연변문예』 1974.1(창간호), 4면; “『천지』로 우리 『연변문예』 잡지 이름을 고친 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생각한다.” 김순기(『연변문예』 50년대 주필), 「천지송_천지에 오르자」, 『천지』 1985.1, 6면; 김성수, 「연변 문예지의 역사와 ‘코리아 문학’ 재구성」, 18면의 오류 수정.

2021년 현재 『연변문학』(1998~2021)의 통권호수를 보면 ‘통권 723호[總第 723 期]’로 되어 있다. 이는 『연변문학』 이전의 『연변문예』, 『아리랑』, 『연변문학』, 『연변』, 『천지』 등의 통권호수를 합친 결과다. 여기서 문예지 매체사를 ‘제호와 통권호수’ 중심으로 정리해보자. 『연변문예』A는 1951년 6월 ‘창간호/제1집’부터 ‘6집’까지 발행되었다. 『연변문예』B⁷⁾는 1954년 1월 ‘총제1기’로 창간되어 1956년 12월 ‘총제 35기’까지 나왔다. 『아리랑』은 1957년 1월 ‘총제1기’로 창간되어 1958년 11·12합간호(총제24기)까지 나온 후 1959년 1월 『연변문학』A로 ‘개칭’⁸⁾되어 1961년 2월, ‘총제50기’로 종간되었다. 1961년 5월 종합 교양지 『연변』으로 통폐합되어 1966년 9월 총제65기까지 나왔다.

문화혁명으로 인한 7년의 공백 후 1974년 4월 『연변문예』C가 ‘총제1기’로 창간되었다. 1981년 3호까지 ‘총제84기’이던 통권호수의 표기법이 1981년 4호부터 ‘루계 85’로 변경되었다. 또한 1982년 12호 ‘루계 105’ 다음인 1983년 1호를 ‘루계 260’으로 고쳐, 통권호수를 154호 소급 산정하였다. 이는 『연변문예』-『천지』의 정통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1951년 4월 창간된 동명의 『연변문예』부터 『아리랑』, 『연변문학』, 『연변』의 통권호수를 합산한 결과이다. 즉 『연변문예』A 6집, 『연변문예』B 35기, 『아리랑』 24기, 『연변문학』A 26기, 『연변』 65기 등이다.⁹⁾ 매체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변문예』A 1951.6~1951.12(총6집)

『연변문예』B 1954.1~1956.12(총제35기)

7) 동명의 잡지라도 별도의 발간사가 있을 경우 논의 편의상 A, B, C로 구별한다.

8) 잡지의 제호 변경, 개제를 연변 문학미디어장에서는 ‘개칭’으로 부른다.

9) 『연변문예』 1951.6~12(6집), 1954.1~56.12(총제35기), 『아리랑』 1957.1~58.12+『연변문학』 1959.1~1961.2(총제50기), 『연변』 1961.5~1966.9(루계65기), 『연변문예』 1974.4~84.12, 『천지』 1985.1~97.12, 『연변문학』 1998.1(루계 442호)~ 2021.6(통권723호). 2호 차이는 좀더 따져보겠다. 통권호수 변경에 따라 지령 100호, 200호 기념호는 없고 ‘루계300’(1986.5), ‘통권 400호’(1994.7), ‘통권 500호’(2002.11), 600호(2011.3), 700호(2019.7) 중 500호 특집이 특기할만하다. 지령 600호를 기념하는 매체사 특집은 없지만, 장춘식, 「탈식민주의와 주변에서 글쓰기」(권두언)와 ‘녀성회원 특집’호로 꾸며져 있다. 대신 매체사적으로 중요한 ‘창간 60주년 기념 특집’ 『연변문학』 603호(2011.6)에 다음 회고 기사가 실려 있다: 리홍규, 「50년대의 문학사업」, 김철, 「『연변문학』과 나」, 김의천, 「나와 『연변문학』」, 정인갑, 「『연변문학』잡지사를 그리며」, 리상각, 「『연변문학』은 회갑나이」.

- 『아리랑』 1957.1~1958.11 · 12합간호(총제24기)
『연변문학』A 1959.1.(제호 변경¹⁰), 총제25기)~1961.2.(총제50기 중간)
『연변』 1961.5~1966.9.(총제65기 폐간)
『연변문예』C 1974.4~1984.12¹¹⁾
『천지』 1985.1(제호 변경)~1997.12
『연변문학』B 1998.1.(제호 변경, ‘루계442기’)~2021.6(통권723호)¹²⁾

II. 연변 문예지의 통시적 계보

1. 당 정책 선전과 조선족문학의 길항: 『연변문예』(1951)-『아리랑』(1957)-『연변문학』(1959)의 매체사

우리가 『천지』 또는 『연변문예』로 총칭하는 통권호수 723호의 문예지는 실은 『아리랑』, 『연변문학』, 『연변』의 통권호수를 『천지』, 『연변문학』과 합친 것이다. 출발은 1951년 6월 延邊文聯籌委會가 편집하고 연변인민출판사에서 간행된 『연변문예』A이다. 표지는 <표 1>과 같다.

『연변문예』A의 창간으로, 일제시기 말과 글을 빼앗겼던 연변의 조선족이 당과 정부의 배려 밑에 한글로 된 자기의 ‘민족문화잡지’를 가지게 된 것이다.¹³⁾

그런데, 『연변문예』는 창간 후 6집만 나오고 폐간되었다.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연변 한글 문예지가 마오[毛] 사상 학습을 통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선전과 소수민족 문예 규범을 위한 문화장치였을 텐데, 일부 작품의 조선족 자치성과 북‘조선’

10) 미상, 『『아리랑』이 『연변문학』으로 개칭』, 『아리랑』 1958.11 · 12, 98면.

11) 장지민이 편찬한 대훈서적 영인본에는 『연변문예』 표지와 판권지를 삭제하고 대신 목차란에 『천지』 제호만 있어 주의를 요한다. 『연변문예』 1983년 1호를 ‘루계 106’ 대신 ‘260’으로 고쳐, 통권호수를 154호 소급 산정하였다.

12) 2009~2021년치는 종이잡지 실물 대신 인터넷 자료를 확인하였다. ‘월간 『연변문예』 차례,’ 조선족 네트워크교류협회[조글로] (<http://www.zoglo.net/blog/read/ybmh/83606/0/60>).

13) 훗날 평양에서 열린 『천지』 창간 4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밝힌 발간 의의이다. 리상각 외, 『민족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두고……』(『천지』 창간 40돐 기념 좌담회), 『조선문학』 528호, 평양: 문예출판사, 1991.10, 64면.

향수가 지나쳤던 것이다. 조선족은 ‘고향과 조국’ 개념이 이중적이어서 ‘조선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과 ‘중국인으로서의 공민’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했을 터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抗米援朝’는 어디까지나 6.25전쟁 시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선족의 자치성을 인정해준 구호이지 마오 사상이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넘어서는 정도는 아니었다.



〈그림 1〉『연변문예』A, 『아리랑』 창간호 표지

1954년 1월 『연변문예』 B(1954.1~1956.12)가 2년의 공백 끝에 창간되었다.¹⁴⁾ 간행 목적으로 청년 작가의 발굴과 배양, 문예 讀物의 공급, 군중 ‘業餘[비전문 비전업]’ 작가의 활동 무대를 제공하는 일반 목적과, 조선족의 소수민족으로서의 유산을 계승하고 민간문예도 포용하자는 연변만의 고유 목적이 병기되었다.¹⁵⁾ 동명의 이전 잡지와 비교하면 抗米援朝, 中朝親善 기조와는 달리 중국 한족 중심 지향이 강화되고

14) 훗날 이를 복간으로 재규정하였다. “채택룡 동지의 도움으로 1956년에 다시 복간되었습니다.” 리상각(천지 편집인), 「민족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두고……」, 『조선문학』 1991.10, 64면. 복간의 또 다른 증거는 통권호수의 합산 산정이다.

15) 배극, 「『연변문예』 창간에 제하여」, 『연변문예』 1954.1, 1면 참조.

조선족 자치 지향이 축소되었다. 가령 독자투고란을 보면 전에는 인민대중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과 조선족의 민족문화유산을 투고하라는 공지에서 조선족 문화는 빠지고 대신 ‘쏘련 및 인민민주주의 국가와 외국의 혁명적 문학’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다.¹⁶⁾ 이를 보면 문예지의 지향과 편집전략이 당 정책 선전 위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56년부터 중국 공산당 정책이 ‘백화제방’의 슬로건 아래 소수민족 우대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이에 따라 『아리랑』이 1957년 1월호로 창간되었다. 창간사를 보면, 당의 ‘백화만발, 백가쟁명’ 방침에 부응하여 창작 범위를 확대하고 문학예술의 각종 유파, 형식, 풍격을 다양하게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었다.¹⁷⁾ 문예지 제호부터 권두시,¹⁸⁾ 문화평까지 민족지적(ethnographic) 지향이 확연한 ‘아리랑’이라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표상하는 명칭으로 바뀐 것처럼 조선족 고유의 소수민족 문화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가령 한글로 된 민요, 시조, 가사, 판소리, 조선 한시 번역 등 조선의 고전문학도 게재되었다. 『아리랑』이 간행된 2년이야말로 연변 문예지 역사상 유일하게 조선족 고유의 민족문화가 한족의 당 선전문학과 대등하거나 상대적으로 우위였던 시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예 창작의 다양성과 자유가 보장되었던 백가쟁명, 백화제방 노선과 조선족 자치 지향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아리랑』은 1958년 11·12월 합간호로 중단되고 1959년 1월호부터 『연변문학』으로 ‘개칭’되었다.¹⁹⁾ 제호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2년간의 백가쟁명, 백화제방적 다양성과 조선족 자치성을 우파 수정주의로 비판하고 마오사상과 당 정책 선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귀하였다. 그래서일까, 권두에 『인민일보』 사설을 게재하거나 마오 찬가, 마오사상 학습, 소수민족의 당 정책과 애국주의 문예 특집 등이 이전에 없이 강화되었다.

그나마 당 정책 선전과 문예 창작 및 조선족문화 창달 사이의 균형을 잡던 『연변문학』은 1961년 2월호로 중단되고, 1961년 5월에 종합지 『연변』으로 통폐합되었다.²⁰⁾

16) 『연변문예』 1954.1, 독자투고란.

17) 미상, 「친애하는 독자 여러 동무들에게」(창간사), 『아리랑』 1957.1. 창간호, 1면.

18) 서현, 「아리랑-영원한 노래」, 『아리랑』 1957.1. 창간호, 2면.

19) 아리랑 문학 월간사, 「『아리랑』을 『연변문학』으로 개칭」, 『아리랑』 1958.11-12합호, 98면.

20) “1961년에 많은 잡지들이 폐간될 때 우리 잡지는 4×6배판에 48페이지로서 1만부 가량 발행하였습니다.” 리상각(『천지』잡지사 책임주필, 시인), 「민족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두고……」(좌담회), 『조선문학』 1991.10, 64면.

문예지 공백기를 메꾸던 『연변』도 5년간 선전지 기능 위주로 발행되다가 1966년 9월, 문화혁명 와중에 폐간되었다.

2. 문화혁명과 이후 조선족문학의 응전: 『연변문예』(1974)–『천지』(1985)의 이론투쟁

1974년 4월, 7년의 공백 끝에 『연변문예』C가 창간되었다. 창간호를 보면 표지2면에 마오 어록이 대형화자로 별면처리되어 실려 있고 목차면에는 ‘림표와 공구를 호되게 비판하자’는 정치구호가 확 눈에 띄게 편집되어 있다.



〈그림 2〉 『연변문예』C, 『천지』 창간호 표지

『연변문예』 발간사를 보면, 문화혁명기 중국의 극좌적 문예노선이 연변 조선족 문학장에도 고스란히 강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의 전투적인 세례를 거치고 모주석의 무산계급혁명문예로선과 당의 민족정책의 찬란한 빛발 아래 상급당위의 비준을 거쳐 조선문판 종합성적 문예간행물인 『연변문예』가 오늘 독자들과 대면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주 각종 혁명적 인민들의 정치문화생활에 있어서의 한날 대사이다.

.....

『연변문예』의 근본적 임무는 혁명적 본보기극을 표본으로 하여 공농병 영웅인물 형상을 창조 부각하는 것이다. 그는 “온갖 꽃이 일제히 피어나게 하며 낡은 것을 밀어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며” “옛것을 오늘에 복무시키며 외국의 것을 중국에 복무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견결히 관철하며 혁명적 본보기극의 창작경험을 학습하고 ‘세 가지를 돌출히 하는’ 창작원칙을 관철하면서 군중성적인 문예창작을 적극추동하며 우리 주 각종 공농병 작자가 위대한 령수 모주석을 노래하고 위대한 중국공산당을 노래하고 모주석의 혁명로선을 노래하고 무산계급문화대혁명과 사회주의 신생사물을 노래하고 공농병 영웅인물을 가송한 내용의 문예작품과 평론문장을 게재하는 동시에 형제지구의 우수한 작품을 소개하게 될 것이다.²¹⁾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문예지의 임무를 “혁명적 본보기극을 표본으로 하여 공농병 영웅 인물형상을 창조 부각하고” “‘세 가지를 돌출히 하는’ 창작원칙을 관철하”라는 대목이다. 이는 江靑의 ‘紅線 문예’ 독재론의 창작방침에 따라 선전극만 만들라는 문화혁명 특유의 독단적 창작 지침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는 四人幫(王洪文, 張春橋, 江靑, 姚文元)의 주도 아래 林彪를 비판하는 ‘批林批孔운동’이 펼쳐진 시기였다. 江靑은 문혁 초기에 그 전까지의 중국 ‘당대’(1949~1966)문예 전반을 ‘검은선’(黑線의 연변 조선어 표기)으로 몰아 배격하고 대안으로 紅線 문예를 내세우면서 구체적인 창작 지침으로 ‘세 가지를 돌출히 하는 三突出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三突出 원칙’이란 문예 창작과정에서 캐릭터를 형상할 때 긍정 인물을 부각시키되, 긍정 인물 중에서도 가장 영웅적이며 이상적인 ‘高金大’를 갖춘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매우 교조적인 창작 지침이다.²²⁾ 사실 문예 창작에서 생활의 사실적 묘사와 전형화는 현실주의(리얼리즘)의 보편적 특징인데, 문혁 특유의 광기에 따라 문예노선이 매우 교조적 극좌적으로 경도된 셈이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하에 창간된 『연변문예』 목차 기획을 보자.

21) 「발간사」, 『연변문예』 1974.4, 4면.

22) 립휘, 「“세가지를 돌출히 하는” 창작원칙의 반동 실질」, 『연변문예』 1977.4; 정판룡 임범송, 「혁명 문예를 교살하는 반혁명살인도-“문예에서 검은선이 전정하였다”는 론조를 반박하여」, 『천지』 1978.4.; 조성일 권철, 『중국 조선족 문학 통사』, 이회문화사, 1997. 참조.

림표와 공구를 호되게 비판하자(상자구호)

북벽음모 짓부시자 (시), 강장희, 11면
력사의 조류는 막지 못한다 (시), 리백설, 12면
‘만인갱’의 참상 재연되게 못하리 (시), 김정석, 13면
투쟁의 불 길속에서 (시), 림연, 14면
우리는 혁명의 주력군 (시), 최균선, 15면
림표의 추악상을 폭로하노라, (시), 리중괴, 15면
투쟁의 불길 (속사묵음), 박춘봉, 16면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연변문예』는 조선족의 문화 창달을 위한 문예지로 간행된 것이 아니라 문화혁명 후기 批林批孔운동의 선전물로 졸속 간행되었다. 실제 문예지 콘텐츠도 정치 선전 일색이다. 흔히 독자들이 문예지에서 기대하는 연변 조선족의 생활감정과 현실을 사실적으로 알기 어렵다.²³⁾ 조선족의 일상을 담은 문예물은 몇 년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서 훗날 조선족문학사에선 아예 이 시기를 거의 공백기로 치부할 정도다.²⁴⁾

이런 방식의 극단적인 정치선전 일변도의 문예지 편집이 결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마오 사망(1976.9.9)으로 문혁이 끝난 시점이다. 이 과정을 연변 문예지 1976~1985년치의 편집 변화를 통해 살펴보자. 마오 추모 특집이 실린 1976년 10월호에는 여전히 마오 어록이 잡지 내표지에 실리고 “모주석은 영생불멸하리라”는 특집 구호 속에 추모글이 여럿 실려 있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등소평의 세 가지 대독초를 비판하자”는 특집 구호 속에 허범 시 「짓부수노라 <총강을 론함>」 같은 정론시가 4편 실린 점이다. 1976년 11월호, 11월호에도 “모주석의 유지를 계승하여 무산계급

-
- 23) 가령 『연변문예』 1974년 7월호를 보면, ‘무산계급문화대혁명송가’란 기획 주제 하에 최룡관, 「봄우뢰」, 허범, 「혁명위원회」, 전광국, 「변강의 탐사대」, 허홍식, 「북국의 ‘강남」, 황상박, 「공인선전대」, 허경석, 「혁명적 본보기극」, 허봉남, 「상해지식청년들」, 김근충, 「6.26'전사」, 김성휘, 「5.7의 길에서」 등의 선전이 묵음과 북경광무국공인업여문예선전대, 「림표와 공구를 비판하자」란 ‘합창시’가 특집으로 실려 있다. 이들의 문학적 예술적 완성도는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 24) “‘문화 대혁명’ 10년은 조선족 문화 창작의 쇠퇴기이며 수난기이다. 조선족 문단에는 진정한 문학 작품이 한 편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성일, 권철 외, 『중국 조선족 문학 통사』, 397면; 이해영, 「연변의 문학과 그 문학적 기억」, 『한중인문학연구』 37, 한중인문학회, 2012, 85~106면. 참조.

혁명사업을 끝까지 진행하자”는 특집 구호와 선전화 속에 추모와 문혁 계승의 기조를 담아냈다.

그러나 1977년이 되자 문예지 논조가 달라졌다. 1월호에는 「백골정의 권모술과 ‘4인패’의 말로」란 제하의 장정일의 4인방 비판 정론이 실리고 “4인패와의 투쟁을 끝까지 진행하자”는 구호와 관련 선전화가 실렸다. 3월호에는 임범송의 ‘문예단론’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방침을 참답게 관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4월호에는 림휘가 「“세 가지를 돌출히 하는” 창작원칙의 반동 실질」에서 江靑의 ‘三突出론’으로 대표되는 ‘紅線’ 문예 독재론을 비판하였다.

『연변문예』 1977년 6호의 ‘문예론단’란 전체는 이러한 기조 속에 문혁의 교조적인 문예노선을 비판하고 다양한 창작론을 제시하였다. 문평의 「‘4인패’의 반혁명 정치 표준을 철저히 비판하자」, 사촌의 「전형을 부각하려면 실제 생활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등이 좋은 예이다. 비록 지문평의 「수정주의 문예리론의 검은 기발」(1977.8) 같은 문혁 고수파의 수구적 논리도 없지 않았으나, 조중저의 「‘주제선행’론을 반박하여」(1977.12), 염숙의 「중간상태의 인물을 묘사하는 것과 ‘중간인물’론 간의 계선을 가르자」(1978.2) 같은 글을 보면 문혁에 대한 연변 문단의 반감이 매우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현실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화된 주인공만 억지로 그려내길 강요하는 3돌출 캐릭터론으로 대표되는 홍선 문예 독재론이 가진 실생활과의 괴리, 현실주의 원칙을 벗어난 교조적 전형론, 예술적 완성도보다 사상과 주제만 우선시하는 비속사회학주의, 정치편의주의 같은 교조적인 폐해에 대한 반감을 잘 알 수 있다.

『연변문예』 1978년 4월호부터 편집 기조가 확연하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 부분적 파편적 1회성 담론 수준의 문혁 비판 논조가 잡지 전체 편집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즉, 4월호 목차면에는 화국봉 주석 명의로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방침을 관철 집행하여 사회주의 문예창작을 번영시키자”는 구호가 문예지 목차면 상단에 상자구호로 레이아웃되어 있다. 이는 문예지 편집의 방향과 노선이 극좌적 문화혁명에서 중도좌파적 개혁 개방으로 방향 전환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체 증거이다. 흥미로운 것은 문혁과 비림비공운동의 외중에 김학철, 최정연, 리옥 등 연변 문단을 대표하는 쟁쟁한 작가들이 줄줄이 숙청, 하방당해 수모를 겪을 때도 『연변문예』 창간호에 「지주자산계급인성론의 반동본질」 같은 극좌적인 정론을 썼던 정판룡이 불과 4년 뒤 다음과 같이 변신한 사실이다.

(전략) 1966년 2월, 번역자 강청은 야심가이며 음모가인 립표와 단팍이 되어 이른바 ‘문예에서 검은선이 전정하였다’는 론조를 조작해내고 문화혁명 전 17년동안 문예전선에서는 ‘모주석의 사상과 대립되는 하나의 반당반사회주의의 검은선이 우리를 전정하였다’고 떠벌였다. 이 악명 높은 검은 론조는 혁명문예 산업을 교살하는 반혁명살인도이며 혁명적문예공작들의 몸에 들썩은 무거운 정신쇠사슬이다. 그러므로 이 반동론조에 대하여 반드시 철저히 비판하고 청산하여야 한다.²⁵⁾

이제 ‘10년 대란’으로 불리는 문화혁명기의 한족 중심 구심력과 당 정책 선전 및 마오 숭배 일변도의 선전지적 편향을 끝내고 문예지다운 특성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다. 1978년을 기점으로 잡지의 편집 성향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에 맞게 바뀐 것이다. 『연변문예』는 1982년부터 월 8만 부를 발행하여 연변자치주 인구 19명당 한 부씩 차례가 갈만큼 널리 배포되었으며, 『천지』로 개칭한 1985년²⁶⁾ 이후 한 해에 7천여 편의 작품이 투고²⁷⁾될 정도로 조선족문학의 장은 풍부해졌다.

3. 한중 수교 후 조선족문학의 대응: 『연변문학』(1998)의 매체사적 변곡점

한중 수교(1992) 이후 연변지역에 본격적인 한중 교류 협력 분위기가 늘어나자

25) 정판룡 임범송, 「혁명문예를 교살하는 반혁명살인도-“문예에서 검은선이 전정하였다”는 론조를 반박하여」, 『연변문예』 1978.4(총제49기), 52면. 게다가 1936년의 동북항일유격전을 그린 박영일, 황봉룡 희곡 〈장백의 아들〉(1959)이 문혁의 격랑 속에서 ‘민족투항주의를 고취한 대독초’라느니 ‘자산계급인성론을 선양한 수정주의작품’으로 비판 매도당할 때 침묵했다가 정세가 바뀌자 옹호한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권철 정판룡, 「동북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송가- 희곡 「장백의 아들」을 다시 읽고서」, 『연변문예』 1978.05(총제50기), 48~51면 참조.

26) 『연변문예』를 『천지』로 제호 변경한 1985년 1월호(루계284)의 권두기획 ‘천지송’ 제하 기사를 보면 연변 문예지의 역대 편집인들의 면모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김해연(원 『연변청년』, 『연변』, 『연변문예』, 『청년생활』 주필), 「새로운 비약의 발판」; 허광일(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주필), 「『천지』의 룡담수를 백두의 폭포수로」; 한수동(원 『연변문예』 부주필, 「천지의 매력」; 채택룡(50년대 초 『연변문예』 창간시기 편집), 「『천지』여 길이 빛나라」, 김순기(『연변문예』 50년대 주필, 「천지에 오르자」; 임효원(『연변문예』 50년대 주필), 「천지에 대한 생각」; 김창석(『연변문예』 50년대 부주필), 「천지의 기백을」; 최형동(『연변문예』 50년대 부주필), 「천지송」.

27) 리상각, 앞의 글, 64면.

조선족이 코리아 남북을 대하는 태도 또한 급변하였다. 문예지도 1998년부터 한국의 광고 지원을 받아 『천지』(1985~1997)에서 『연변문학』으로 제호와 외형, 편집체제와 내용을 대폭 개편하였다. 문예지 편집의 원칙이었던 중국과 조선족의 이원적 관계는 지키되 50년 가까운 친(북)조선 관행은 급격하게 퇴조하였다. ‘비교문학’ ‘배달민족 문학’ ‘백의민족문학’ 등의 새로운 명분으로 (남)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더니 불과 1년 만에 친남 성향으로 기울어졌다.

그런데 편집 혁신호인 『연변문학』 1998년 1월호에는 별도의 창간사가 없다. 잡지 통권 호수도 ‘총 442호[總第442期]’로 표기하였다. 그런데도 『연변문학』을 이전 441호와 차별화된 잡지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잡지 판형, 목차 편제, 레이아웃 등 외형의 변화와 내용상의 전면 개편이다. 판형이 46배판에서 신국판으로 작아진 대신 면수는 80면 내외에서 3~4백면 내외로 대폭 늘어났고 책 장정과 지질도 고급스럽게 바뀌었다. 종래의 단순한 단색조 선전지 스타일 편집에서 화려한 색채와 세련된 디자인, 다채로운 편집으로 “한번 사보고 싶게 만드는 상품”으로 확 달라졌다. 한마디로 사회주의적 선전지에서 시장경제에 적응한 판매용 상품으로 변화하여 ‘자본’의 위력이 발휘된 셈이다. 잡지 유통방식도 이전의 실비 제공이나 무가지 배포에서 벗어나 유료 판매와 정기구독자를 널리 모집하되 해외동포에까지 이를 광고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림 3〉 『연변문학』B 1998년 1월호 뒤표지와 2월호 앞표지

편집 형식도 이전처럼 주제별, 장르별 단순 편집을 고집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편집 전략이 시도되었다. 가령 ‘회원, 신인, 명인, 중국, 비교문학, 형제문학지’ 등 창작 주체별로 고정란을 만들어 작품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목차 편집과 콘텐츠 배열이 시도되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내용은 월아라는 필명의, 「‘기자탐방’_끊어진 피줄을 잇고저」에서 조선족 작가들의 독자적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탐방기사이다. 조선족 작가들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기사와 연변작가협회 회원명단을 붙여 있다. 이를 보면, 소설창작위원회, 시가창작위원회, 아동문학창작위원회, 평론창작위원회, 번역창작위원회 등의 장르별 명단과, 북경지구창작위원회, 료녕성지구창작위원회, 흑룡강지구창작위원회, 장춘지구창작위원회, 길림지구창작위원회, 통화지구창작위원회, 중문창작위원회 등의 지역별 명단이 있다. 명단을 보면, ‘연변문학’이 동북 3성 거주 조선족의 문화적 중심거점일 뿐만 아니라 멀리 북경까지 지부가 있고, 혈연은 조선족이되 중문으로 창작하는 작가까지 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⁸⁾

그런데, 연변문학월간사 판권지란의 공지를 보면 “우전 발행부문과의 사전협의가 없었으므로 『연변문학』(원 ‘천지’)은 1998년 1월부터 자체 발행을 하게 됩니다.”²⁹⁾라는 대목이 있어 주목된다. 잡지 제호 변경이 잡지사 자율로 급히 결정되어 상급기관의 허가가 아직 나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발행했다는 뜻이다.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겼다. 1998년 2월호의 목차 사이에 별지로 삽입한 메모형 간지에는 편집부 명의의 「알림」(『연변문학』 1998.02, 간지)으로, 『연변문학』 제호 변경이 상급기관에서 허가하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어 주목된다. “원래 『천지』 잡지가 길림성, 연변자치주의 유관 기관의 동의를 거쳐 『연변문학』으로 개칭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중국 중앙부서의 국가신문출판서가 비준이 해주지 않아 (전국적으로 신문, 잡지 정돈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1998년도 3기부터 다시 원 『천지』 명칭으로 출판되게 된다.”는 공지이다. 실제로 『연변문학』 1998, 99년치 표지에는 ‘연변문학’이란 큰 제호의 우측상단에 조그맣게 ‘천지 2호’라고 작은 제호가 병기되어 있다.³⁰⁾ 이후 지금까지 『연변문학』 제호로 월간 문예지가 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예지의 제호 변경이 바로 연변 조선족

28) 월아, 「‘기자탐방’_끊어진 피줄을 잇고저」, 『연변문학』 1998.01, 353~371면.

29) 「정기구독자 모집 안내 (국내)」, 『연변문학』 1998.01, 352면.

30) <그림 3>에서 보듯이, 한동안 두 개 표제가 병기되다가 국가신문출판서의 비준이 내린 후 개칭된 『연변문학』으로 간행되었다.

문학의 조중관계 및 남북중관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체사적 징표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변문학』 간행의 매체사적 의의는 자못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잡지의 편집 주체와 물적 기반 변화에 따른 잡지의 외형과 목차편집뿐만 아니라 작품과 기사 내용도 대폭 개편되었다. 목차면의 큰 분류를 보면, 맨 앞에 조선족 현역 작가 작품이 실리고 다음으로 ‘신인작품, 명인작품, 중국문학, 비교문학, 형제문학지 우수작’ 순으로 편집되어 있다. 이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명인작품’란이다. 운동주의 대표작 「서시」, 「쉽게 씌여진 시」, 「십자가」, 「돌아와보는 밤」을 싣고, 일철의 「시인 운동주의 생애」, 리해산의 「운동주 시가의 의경미」 등, ‘운동주 시인 특집’³¹⁾을 꾸몄다. 운동주 시인이 바로 중국 조선족, (남)한국, (북)조선이 공감하는 대표적 시인이기에 이런 고정란 편집의 의의가 있다. 이렇듯 ‘명인작품’란에는 코리아 디아스포라 문학의 범주로 묶을 수 있는 운동주 외에 김창걸, 리옥, 김학철, 김철, 리근전, 최남선 등 6명이 더 실려 있다.³²⁾

『연변문학』이 『연변문예』 『천지』 편집체제와 달라진 또 다른 내용은 ‘비교문학’ 또는 ‘배달문학’란의 신설 운용이다. 코리언 디아스포라 문학의 배치가 고정란으로 연재되는 것이다. 편집방식은 연변 비평가의 총평 하에 ‘한국, 조선, 연변’ 작가의 글이 나란히 실리는 방식이다. 1998년 1월호에는 김관웅의 「90년대 배달소설문학 점평」이란 소설평 하에 성석제(한국)의 「이른 봄」, 림종상(조선)의 「쇠찌르러기」, 김영자(연변)의 「섭리」가 실린다. 2월호에는 허룡구의 시 작품평, 「조선어문학관에서 3국 시문학 편린 비교」 제하에 리근배,³³⁾ 「노래여 노래여」, 홍현양, 「2월의 흰 눈송이」 석화, 「저 누런 황소를 바라보며」 등의 시가 실린다. 3월호에는 최웅권의 소설평, 「내심세계 심미화과정에서의 각이한 표현」 하에 한승원(한국)의 「황소개구리」, 김호석(조선)의 「푸른 들」, 조성희(연변)의 「흐느끼는 땅」이 실려 있다.

1998년 4월호부터 ‘배달문학비교’로 바뀐 고정란 이름으로, 최삼룡의 「흐르는 물

31) 『연변문학』 1998.1, 183~194면.

32) 『연변문학』 ‘명인문학란에 실린 작가(괄호는 게재 호수)는 김창걸(1998.2), 리옥(1998.3), 김학철(1998.4), 김철(1998.5), 리근전(1998.6), 최남선(1999.6) 6명이다. 친일 경력으로 (북)조선에서 배제한 최남선이 이채롭다.

33) 한국 대표시인 ‘이근배’를 북조선식으로 ‘리근배’로 표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때까지는 아직 친북 성향이 남아 있었다.

을 읊은 시 3수」란 시 평론과 조기천의 「흰 바위에 앉아서」, 김관식의 「계곡에서」, 김성희의 「시내물」 등, 현역/생존 시인이 아닌 1950년대 대표 시인의 산수시가 나란히 실려 있다. 5월호에는 김봉웅, 「민족의 생존환경과 문학양상」 작품평론 하에 리희성(일본)의 「8월의 비」(단편소설), 박미하일(까자흐스탄)의 「나비의 꿈」, 정세봉(중국)의 「빨간 ‘크레용태양」」 등 남북 연변을 제외한 디아스포라 문학을 싣고 있다. 6월호에는 최창록, 「시문학의 자유와 사명」 평론 하에 리성애(조선)의 「그는 어디에 있는가」, 조태일(한국)의 「청보리밭에서」, 김학송(연변)의 「사람이 그림다 외 1수」시가 실린다.

1998년 8월호에는 김만석의 「분단상황을 둘러싸고 쓴 동시들에 대한 비교연구」 하에 량광찬(조선)의 「무등산의 진달래야」, 신현득(한국)의 「휴전선에 선 감나무」, 한석윤(중국)의 「3·8선의 덩굴풀」 등 동시가 나란히 실려 있다. 10월호에는 장정일(연변)의 「벼랑 그리고 기암괴석의 파격의 멋」 평론 하에 조병화(한국)의 「일하는 기쁨」, 리상현(조선)의 「새로운 느낌」, 리화숙(중국)의 「유머-남자의 멋」 등의 수필이 실려 있다.

이처럼 『연변문학』이란 문예지의 ‘비교문학’ 고정란에서 조선족 평론가가 (남)한국, (북)조선, 중국 조선족 세 작가의 통일이나 민족적 공감대를 보인 작품평을 앞에 싣고 예시로 시, 소설, 동시, 수필 등을 나란히 게재한 모습이 바로 코리언 디아스포라 문학의 미디어적 상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리언의 통일이나 통합을 기대할 편집은 여기까지였다. 1999년 연변 문예지부터 (북)조선 작가의 자취를 찾기 어렵다. 대신 ‘해외조선인문학’이 한두 회 보일 뿐이다.³⁴⁾

『연변문학』 1999년 6월호 이후에는 ‘비교문학’ ‘배달문학비교’ ‘해외조선인문학’ 등의 고정란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창작 주체별로 분류된 편집상 조선족 작가 이외에는 한국 작가들의 글만 ‘한국문학’이란 고정란에 재수록 형식으로 실리게 된다. 박완서(한국)의 단편 「꽃잎 속의 가시」와 송현호의 작품해설, 「전통적 금기와

34) 1999년 3월호의 ‘해외조선인문학특집’을 보면, 공명희(로씨야), 「T.B.두브롭스카야」, 이정희(까자흐스탄), 「그날」, 조윤호(미국), 「나비의 춤」 등의 소설, 양원식(까자흐스탄), 「시선」, 동기춘(조선), 「인생과 조국」, 정장(일본), 「사람이 되기까지」, 구상(한국), 「나의 무능과 무력도 감사하고」 등의 수필, 한익환(한국), 「도자기 단상」, 박건호(한국), 「이상기온 외 2수」 등의 시가 실려 있다. 1999년 4월호엔 박미하일(까자흐스탄), 「기다림」 5월호엔 최인선(미국), 「끝없는 길」이 ‘해외문학’이란 고정란으로 실리지만, 이마저도 폐지되었다.

무의식적 전통 거부)(작품해설)(고정란-한국문학)가 6월호에 실려 있다. 7월호에는 윤대녕의 단편, 「빛의 걸음걸이」가 실리는데, 이는 1998년 현대문학상 수상작으로 심사평 3편도 함께 전재된다: 김윤식, 「빛 속에 드러난 삶과 죽음의 현장성」, 김화영, 「시간과 빛의 흐름」, 박완서, 「빛의 갈피에 숨어있는 어둠」. 아무래도 연변 문예지에 현대문학상 수상작과 심사평이 앞뒤 맥락 없이 실리는 것은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연변문학』에서 코리언 디아스포라 문학의 미디어적 상징을 찾기 어려워진 셈이다.³⁵⁾

Ⅲ. 연변 문예지의 쟁점과 디아스포라문학의 정체성

1. 연변 문예지의 주요 쟁점

연변 문예지 『연변문예』(1951~1984), 『천지』(1985~1997), 『연변문학』(1998~2021)의 특집 기획 및 문제작(대표작)에 나타난 쟁점은 대략 네 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중국의 당 정책 선전, 조선족의 문학적 정체성, 연변의 민족문화유산 교양, (북)조선과 (남)한국과의 외교 관계 변모 등의 쟁점이다.

첫째, 중국 당국의 당 정책과 마오사상 선전: 기실 연변 문예지는 연변문련주위회(1951)로 출발한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 연변작가협회 등 작가조직의 기관지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문예지의 1차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의 당 정책과 마오사상 및 마오 숭배의 선전 기능이 연변 문예지 전체에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다. 적어도 1997년까지는 선전지적 성향이 문예지 고유 기능을 압도하였다. 한때, (북)조선의 ‘도식주의 기록주의 비판’론과 유사한 ‘개념화, 공식화’ 편향을 비판했던 『아리랑』잡지(1957~1958)의 ‘백화만발, 백가쟁명’³⁶⁾ 시기가 잠깐 있었으나, 1998년 이전의 50

35) 이후에는 계속 ‘한국문학’란에 이남 작품과 해설만 재수록된다. 원재길, 「먼지의 집」(1999.8, 461호, 272쪽)과 신수정의 해설, 장정일(한국)의 수필, 잡문 수준의 평론 「변두리문학의 모종 가능성」(1999.8, 461호, 242쪽), 박범신 단편, 「내 기타는 죄가 많아요 어머니」(1999.9)와 김영택의 해설, 신상성 소설과 서지월 시(1999.10), 리시환 시, 김영하 소설과 신수정의 해설(1999.11), 구효서 소설과 강진호의 해설(1999.12) 식이다.

36) 미상, 「친애하는 독자 여러 동무들에게」(창간사), 『아리랑』 1957.1. 창간호, 1면. 최정연, 「개념화

년 매체사 대부분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한 것은 당 정책과 마오사상 선전 콘텐츠였다. 이를테면 임효원, 「위대한 태양 경애하는 모 주석」(『연변문학』 1959.5), 미상, 「모택동 사상으로 무장하여 문예의 보다 큰 풍작을 거두기 위해 분투하자!」(『연변문학』 1960.3), 미상, 「모택동 사상을 학습하여 문예의 보다 큰 약진을 쟁취하자!」(『연변문학』 1960.3), 김영훈, 「‘공산당 만세 · 모주석 만세’_모택동 선집 들고」(『연변문학』 1960.7) 등등이 그런 예들이다. 특히 2장 2절에서 예시했듯이 『연변문예』(1974~1984)의 상당 부분이 당 정책 선전과 마오사상 교양, 정치적 격변에 따른 비문예 콘텐츠들로 채워졌다.

둘째, 조선족의 문학적 정체성: 우리가 연변 문예지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문예지 콘텐츠에 반영된 조선족의 삶과 생각, 감정을 알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즉 조선족이라는 중국 내 소수민족의 문학적 성과와 그를 통한 조선족의 정체성 문제이다. 예를 들어 배극의 「몇년래 연변의 문학 창작 정황과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의 임무」(『연변문예』 1956.10), 한광춘의 평론 「민족 문학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면에서 본 『연변문예』(『아리랑』 1957.1), 김창걸, 「연변의 창작에서 제기되는 민족어 규범화 문제」(『아리랑』 1957.7) 등이다.

이들 조선족문학과 그들의 정신적 고향인 코리아 조선문학을 대표하는 대표 작가와 작품평을 통한 문예 진흥책은 특히 1990년대부터 문예지 콘텐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김학철의 『해란강아 말하라』 같은 명작을 많이 창작하지 못했다는 자성이다.

우리 민족문학의 발전의 견지에서 놓고 보면 『천지』잡지가 논 역할이 대단히 큼니다. 『천지』잡지사 일군들은 모더니즘에도 빠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어떤 류파에도 휘말려들지 않고 오직 사회주의사실주의 기치를 끝까지 들고 왔습니다. (중략)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데서 잡지 『천지』만큼 발행부수가 많은 잡지는 없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아직 조선족작가들이 다른 민족출신 작가들을 놀래울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들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³⁷⁾

셋째, 연변 민족문화 교양: 신민요 아리랑, 전래 민요, 시조, 한시 등 조선족 민족문

공식화에 대하여, 『아리랑』 1957.2, 1면.

37) 리원길 외, 앞의 글, 66면.

화유산의 수집 소개와 재창작이다. 『연변문예』(1954~1956), 『아리랑』(1957~1958) 간행 시기에 특히 많이 나왔다. 가령 리갑기, 「춘향전의 주제와 시대성」(『연변문예』 1955.10), 리영, 「『춘향전』 무대 뒤에서」(『연변문예』 1956.2), 김창석, 「심청아! 춘향아!」(『아리랑』 1957.3), 김창걸, 「시조 문학 형식에 대하여」(『아리랑』 1957.4), 리근전 정리, 「배뱅이굿」(『아리랑』 1957.5), 김창걸, 「『고려가요』의 내용과 형식」(『아리랑』 1957.6), 김창석, 「새 메나리」(『아리랑』 1957.12), 차녕호, 「시조 2수」(『아리랑』 1957.12), 연암 박지원, 「렬녀 함양 박씨전」(『아리랑』 1958.3) 등등.

이들 성과는 당시 잡지에 투고된 대로 연변대 학생까지도 파악하고 있을 정도였다.

『연변문예』는 우리의 작가, 창작자들의 민족 문학 유산을 옳게 계승 발전시키는 문제를 잊지 않으면서 제때에 적당한 평론 리론문을 발표했고 소개하였다. 「민간 구전문학을 연구하는 과업을 정확히 진행하자」(54년 3월호), 「민간 이야기의 수집 연구에 관하여」(55년 9월호), 「고전에 대한 인식」(54년 9월호) 등은 모두 민족 문학 유산을 계승 발전시킴에 관한 부정확한 관점과 현상을 시정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함에 이바지한 리론문들이다.

이외 연변에서 『춘향전』의 인출, 『림격정』의 판매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리갑기 선생의 ‘춘향전의 주제와 사상성,’ 안함광 선생의 ‘홍명희작 림격정’이란 문장의 소개를 통하여 광대한 군중들로 하여금 그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심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³⁸⁾

『아리랑』과 『연변문학』잡지가 나오던 1950년대 말에 조선족의 민족문화유산과 민족형식, 민족풍격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관련 기사, 고전문학작품이 여럿 소개되었다. 다만 1974년 이후에는 조선족의 민족문화 교양과 관련된 고전 텍스트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넷째, (북)조선과의 친선에서 남북의 등거리 관계로의 변모: 연변 문예지 창간 당시가 6.25전쟁 시기라서 ‘항미원조’ 관련 콘텐츠가 초기에 적잖이 실렸다. 조선작가동맹 서기장 ‘홍순철(조선)’의 ‘통일 평화 만세’ 구호가 반복되는 시 「조선의 목소리」(『연변문예』 1954.8), 조선로동당 최고위간부인 최룡건의 정론, 「영웅 조선 인민의

38) 한광춘(연변대 학생), 「민족 문학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면에서 본 『연변문예』-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 성립을 맞으며」(평론), 『아리랑』 1957.1, 53면.

예술」(『연변문예』 1954.7), 월북 시인 박세영의 「시의 형상과 진실성」(『연변문예』 1955.3), 안함광의 「홍명희 작 『임궏정』」(『연변문예』 1955.10), 리영, 「조선 전선에 이런 사람이 있다(1952.4. 『항미원조시선』에서 전재) 부기」(『연변문학』 1959.8) 등이다. 나아가 연변 시인 주선우의 시 「궁전을 지을 때도」(1954)를 보면, 6.25전쟁이 종전된 후 평양거리를 복구할 때 중국이 도와준 ‘조중친선’의 메시지가 다음 시구처럼 표현된다: “아름다운 조선이여! / 이 산이 불탈 때에 심은 묘목이/ 포연 속에서도, 싱싱 푸르렀으니// 김일성거리에 궁전을 지을 때는 / 우리들 모택동의 전사도 가리라// 피로써 맺어진 형제이거니/ 나도 대리석을 깎으려다.”³⁹⁾

다른 한편 조선족문학이 (북)조선문학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며 구체적인 모범 작가와 작품의 예를 들어 거론하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다.

리원길: 나는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사람으로서 어려서부터 조선의 문학을 통하여 눈을 뜨고 기교를 배웠습니다. 저에게 영향을 준 것은 조선의 문학이었습니다. 리기영 선생의 「땅」과 조기천과 김소월의 시들이었습니다. 천세봉 선생의 장편소설 『대하는 흐른다』, 『석개울의 새봄』, 『축원』과 석윤기 선생의 『시대의 탄생』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 중국의 조선족 민족문학은 조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보다 더 넓은 범위로 활동무대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조상의 말과 글로 또 조선의 우수한 작품들을 섭취하면서 중국의 실정에 맞는 민족문학을 개척해 보려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⁴⁰⁾

그런데 1998년 『연변문학』부터 오랜 친북 전통이 깨지고 ‘코리아 남북에 대한 등거리’ 외교관계가 시작되었다. 『연변문학』 1998, 99년치를 보면 ‘비교문학’ ‘배달 민족문학’ ‘백의민족문학’이란 이름으로, (남)한국과 (북)조선의 문학이 동등하게 병렬로 소개되었다. 그나마 1999년부터 (북)조선 관련 콘텐츠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현재까지 친한국 성향의 편집이 정착되어 있다. 문혁으로 인한 조선족문화의 말살 책동을 ‘10년 대란’의 트라우마로 기억하는 연변 조선족 문인들에게 문혁의 마오 숭배와 4인방의 ‘홍선 문예 독재’론을 연상, 환기시키는 (북)조선의 ‘수령론’ ‘주체문

39) 주선우, 「궁전을 지을 때도」, 『연변문예』 1954.1., 24면.

40) 리원길, 앞의 글, 66면.

예론’ ‘선군’담론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터이다.

2. 조선족문학의 디아스포라적 정체성: 「혈해지창」(1959) 사례 분석

다음으로 연변 문예지의 쟁점을 조선족문학의 디아스포라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사례 분석하기 위하여 까마귀란 필명의 「혈해지창」(『연변문학』 1959.9)을 간략하게 논의해본다.

「혈해지창」은 『연변문학』 ‘편자의 말’⁴¹⁾에 따르면, 까마귀라는 필명의 연변 지역 항일 빨치산 참가자가 필사해두었던 대본을 1959년 연변대 조선문학부 조선족문학 자료수집조에서 발굴하여 ‘2막 1장’ ‘희곡’으로 전제한 것이다. 당시 항일 유격구 인민 가운데서 이른바 혁명적 연극과 혁명적 노래를 공동 창작 유통하는 아마추어 예술 선동이 활발했던 바 그 중 한 텍스트였을 것이다. 정확하게는 공연 필사본이 훗날 발굴된 것이리라. 무엇보다도 (북)조선처럼 최고 지도자 ‘김일성이 직접 창작한 혁명가극’⁴²⁾ <피바다=혈해>로 명기하지 않고 ‘연변 군중문학 작’으로 명기한 점이 특기할만하다. 주체문예의 적통인 항일혁명문예 대표작 <피바다>의 원형이 「혈해지창」이란 설 자체도 논란이지만, 실은 ‘김일성 작’ <피바다>의 원형 <혈해>와 조선족의 군중문학 <혈해지창>을 비교 분석하면 조선족문학의 정체성을 재확인할 것으로

41) “극본 〈혈해지창〉은 까마귀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의 손에 의하여 1937년에 창작된 작품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동북을 침략한 후 가는 곳마다 살인 방화를 일삼았으며 봉건 지주와 결탁하여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하기에 중화 민족의 우수한 아들딸들은 위대한 중국 공산당의 령도 밑에 항일 무장 투쟁에 용약 참가하여 도처에서 원수들을 소탕하였다. 당시 항일 대오 내에서와 유격구 인민들 가운데서는 혁명적 연극 활동과 혁명가를 전파하는 활동이 매우 번창하였는바 이런 문예 활동은 군중을 결기시키는 유력한 무기로 되어 있었다.

〈혈해지창〉은 우리가 발견해낸 그런 작품 가운데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한 발견은 우리에게 더 없는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혈해지창〉은 당시의 력사적 정황을 놓고 볼 때 정치사상에서 일으킨 작용은 자못 큰 것이며 우리 연변 문학 사상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지는 작품이다. 편집부는 이 극본을 기본상 원형 그대로 발표하면서 여러 독자, 작가들께서 급후 이 극본의 완전한 정리를 위해 보귀한 의견들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 〈혈해지창〉의 다른 대본을 찾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미상, 「편자의 말」, 『연변문학』 1959.9, 6면.

42) (북)조선에서는 <피바다> 같이 김일성의 직접적 지도로 창작되었다는 항일 무장 투쟁기 예술 선전물을 ‘불후의 고전적 명작’으로 정전화한다. 김성수, 「항일혁명문학(예술) 담론의 기원과 주체문예의 문화정치」, 『민족문학사연구』 60, 민족문학사학회, 2016.4. 참조.

반면, <피바다>의 원형이라는 <血海>는 스토리와 주제가 다르다. 즉 북간도를 침략한 일제 군대와 헌병의 야만적인 민간인 살육과 만행에 항거하는 조선인(조선족이 아니다!) 순녀와 그의 남편, 아들이 항일유격대를 목숨 걸고 지키는 군민단결의 주제가 더 부각된다. 1959년에 발굴된 연변의 1937년판 춘극 대본과 1936년 김일성이 지었다는 ‘혁명가극’은 결이 달라서, 연변 문예지를 통한 중조관계의 이원구조, 이중성과 남북 통일문학, 코리언 디아스포라문학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필자에게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사실 연변 문예지의 매체사를 시계열적으로 볼 때, ‘항미원조’전쟁(1951년) 시점의 ‘중조친선’과 (북)조선이 1930년대 빨치산 투쟁의 기억을 건국신화에 버금기는 ‘혁명 전통’으로 ‘신화의 역사화’를 시도했던 1959년 시점의 ‘조중친선’관계를 평면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실상과 맞지 않다. 가령 <피바다>와 <혈해지창>은 동일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혈해지창>의 주제는 중국인 송마마와 그 아들 왕핑이 조선인 삐꼭새의 유격대 임무를 대신하겠다는 대목에서 의도가 잘 드러난다.

마마: 젊은이 우리를 믿소, 우리는 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오?

삐꼭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전 빨리 산으로 들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왕핑: 무슨 일입니까? 제가 갔다 오지요.

삐꼭새: 안되오.

왕핑: 저를 믿으십시오. 중, 조 민족은 다 같은 형제이니 같이 싸워야 합니다. 무산자는 모두가 같은 처지니 절 믿으십시오. (팔을 걷어 상처 자리를 보이며) 늙들에게 얻어맞은 상처를 보십시오. 나는 이 원썬을 갚아하겠습니다.

삐꼭새: 그렇소? 훌륭하오. 우리는 일본놈을 쳐부수기 위해선 모두가 다 단결해서 싸워야 하오.

마마: 옳은 말이요. 우리는 다 한 집안 사람과 같소.

삐꼭새: (가슴에서 붉은기를 꺼내 송마마에게 주며) 어머니 이걸 받아 주십시오. 저는 친어머니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동생을 만났습니다.

왕핑: 붉은기!

(중략)

삐꼭새: 동무들 우리의 북간도는 이렇게 피바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화 민족의 영웅적 노래는 끝없이 중국 별판에 퍼질 것입니다. (시체에 붉은기를 덮

어주며) 길이 잠들어라 이 이름은 천추에 빛나리라. 어머니와 너의 은혜 가슴
깊이 새기면서 싸우리라 (흐느껴 운다).⁴⁴⁾

“중·조 민족은 다 같은 형제”“우리 중화 민족” 같은 대사는 연변을 위시한 북간도 지역 항일무장투쟁의 중심인 중국 팔로군의 입장에서 나온 말이지 조선족이나 (북)조선의 독자 투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이 작품의 의의를 평가한 1980년의 연변 문학 개관⁴⁵⁾에서도 이 점은 잘 드러난다. 비장하고 격동적인 사실과 극적 갈등을 통하여 항일투사의 형상을 성공적으로 부각하였고 항일전쟁의 특징을 폭넓게 일반화하였으며 “조한족 간에 피로써 맺어진 혁명적 우의”를 감명 깊게 표현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 연극이야말로 조선족문학에서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라는 규정이다.

항일유격구에서 혁명적인 연극활동은 대중성적인 정치선전사업과 대중문화사업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매우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런 연극활동에서 허다한 연극작품들이 창작 상연되었는데 연극 <혈해지창>, <싸우는 밀림>, <4.6제>, <복수>, <승리> 등이 그 좋은 실례로 된다. 이 시기의 연극은 화극[畫劇]과 가극 외에 또 대화극, 인형극, 가면극, 풍자극, 창극 등 여러가지 형식이 있었다. 이런 연극들의 대부분은 항일투쟁에 직접 참가했던 전사들의 집체창작으로서 적은 등장인물들과 간소한 무대장치로써 진행되었다. 이런 희곡작품의 주제는 직선적인 명료성을 구유하였으며 대사들은 생동하고 간결하였다.

장막극 <혈해지창> (1937년에 창작됨)은 이 시기 극문학에서의 대표작이다. 이 작품은 왕청라자구 등 지방에서 상연되어 군중들의 절찬을 받았다.⁴⁶⁾

그런데 왜 한국에는 연변의 <혈해지창>이 북한 문예의 대표 정전 <피바다>의 원형으로 알려졌을까? 이와 관련하여 연변 출신 학자의 연구⁴⁷⁾에 따르면, 1959년 연변대 조선문학부 학생이었던 조성일 연변사회과학원 문학예술연구소 소장이 『연

44) 까마귀, 「혈해지창」, 『연변문학』 1959.9, 12면, 15면.

45) 권철 조성일, 「중국조선족문학 개황」(1), 『연변문예』 1980.1(총제70기), 54~59면.

46) 앞의 글, 57~58면.

47) 김정은, 「조선의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의 뿌리를 더듬어」, 『중한언어문화연구』 9, 천진: 천진사범대 한국문화연구중심, 2015.

변문학』(1959)에 기발표된 <혈해지창>을 1987년 『문학과예술』지에 재수록하였다. 1990년 7월, 연변을 방문한 권영민 교수가 『문학과예술』의 <혈해지창> 극본을 조성 일에게 입수한 후 『문학사상』(1990년 9월호)에 전재하고 김일성 직접 창작설을 반박하였다.⁴⁸⁾

실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관련 자료를 종합해보면, 1930년대 중반 북간도에서 활동하던 항일 빨치산의 집체창작물이라 할 선전가요 <피바다가>가 있었고, 그 노래 가사를 스토리텔링의 기초로 삼은 <혈해지창> 촌극이 예술선동대에 의해 공연되었다. 그 과정에서 까마귀란 익명의 유격대원이 대본을 기록해두었는데, 그것이 훗날 연변대 학생에 의해 발굴되고 다시 연변 문예지 『연변문학』에 수록되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북)조선에서는 백두산을 둘러싼 북간도 지역의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채록하던 수집조에 의해 <혈해>란 제목의 노래와 촌극이 보고되었을 것이다.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구전되었던 정치민요, 촌극이 ‘혁명(적)가요’ ‘혁명(적)연극’으로 이름을 얻으면서 위상이 높아졌다. 처음엔 ‘항일혁명문학예술’이라는 장르명도 없던 이들 빨치산 예술선전물의 격을 높이기 위해, ‘혁명적 가요’와 ‘혁명적 연극’이 국내 프롤레타리아 문학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⁴⁹⁾ 훗날 김일성의 자서전에 이르러서 <피바다>의 최초 대본을 자신이 직접 집필하고 수하의 리동백이 연출했다⁵⁰⁾고 하였다. 김일성의 회고가 절대 진리가 되는 것이 북조선 특유의 수령론의 위력이다. 이에 따라 연변 <혈해지창>은 북조선에서는 완전히 잊혀졌다.

연변 문예지의 매체사적 쟁점을 의제화하는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이 지점에서 코리아 남북과 연변 조선족, 세 축의 역학관계를 상징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1930년대 북간도에서 무장 투쟁을 벌이던 유격대의 전투 중간 휴식 시간에 공연되었을 예술 선동 ‘노래와 촌극’ <혈해=피바다> OSMU의 시초가 1970년대 초 (북)조선의 ‘문학예술혁명’에서 다양한 장르 OSMU로 재창작되면서, 정치적 필요에 따라 최고 지도자 개인 창작으로 미적 전유, 독점된 것이다. 그런데 연변 문예지에 실린 극

48) 권영민, 「<혈해지창> 해설」, 『문학사상』 1990.9. 참조.

49) 기자, 「우리 문학의 혁명전통에 대한 학술보고회 진행」; 현종호, 「항일무장투쟁의 영향 하에서 발전된 국내 프롤레타리아 문학」, 『문학신문』 1959.8.28., 2면 참조.

50) 김일성, 「<피바다>의 초연무대」, 『세기와 더불어』 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년, 48면.

대본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남)한국 학자가 이를 (북)조선 지도자의 개인숭배를 비판하는 반박 근거로 삼았으니, 양측 다 문학예술은 사라지고 적대적 이념 대결만 남은 셈이다. 이런 식의 <혈해지창>과 <피바다>를 둘러싼 ‘삼국지식 문화전쟁’은 아니다싶다.

필자는 <혈해지창>의 실증적 자료 추적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명쾌한 결론을 내린 연변 출신 학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항일연극 극본 <혈해지창>은 속지주의원칙이나 속인주의원칙으로 봐도 중국조선족문예의 전통에 속하므로 이 작품을 중국조선족문예사에 편입시켜야 한다.”⁵¹⁾ 이런 맥락에서 연변 문예지를 통해 조선족문학의 정체성을 논할 때 한국 중심의 ‘코리언 디아스포라 문학’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선족 항일문학을 (북)조선 중심의 ‘항일혁명문예’에 귀속시키거나, 또 다르게 ‘동북 문화 공정’을 위한 한족 중심의 ‘抗戰문예, 抗米援朝 문예’로만 보는 것도 문제다. 이들 접근법은 모두 문화제국주의의 자기중심적 팽창주의, 문화적 패권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혈해지창>처럼 연변 문예지에 담긴 조선족문학의 정체성은 조선족의 독자 문화이자 광의의 코리아문화 정도로 봐야 할 것이다.

IV. 결론: 연변 문예지를 통해 본 ‘통일, 디아스포라’문학론의 자기비판

『연변문예』지는 1951년 창간부터 1966년까지 중국 한족의 黨문학의 구심력과 조선족 민족문학의 원심력 사이에서 역동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사회주의적 국제연대성 원칙과 抗米援朝 전쟁의 혈맹 관계가 반영된 친(북)조선 중심 성향이 1951~1997년 정착되었다. 잡지가 문화혁명으로 폐간(1966)되었다가 1974년 복간되어 1985년 『천지』로 개칭된 후에도 기조는 유지되었다. 한중수교(1992) 이후 잡지가 대폭 개편된 1998년 1월 『연변문학』부터 남북 等距離 관계로 일시적 전향기를 거쳐 2021년 현재까지 20년 넘게 친남관계가 정착되었다.

2005년 처음 연변 문예지(영인본)를 북한 문예지 전질과 함께 구했을 때 기대한

51) 김정은, 「조선의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의 뿌리를 더듬어」, 앞의 글, 75~76면.

바는 조선족문학을 실사구시로 접근하여 북한문학 연구 및 통일문학론의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⁵²⁾ 나아가 ‘(남)한국-(북)조선-(중)조선족’ 세 축을 통국가적(Transnational)으로 가로 질러[絶合] ‘한겨레의 언어와 한글’ 문학 및 문화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문예지 7백여 호를 일별해 보니 기대와 실상이 달랐다. 한국 연구자의 자기중심적 욕망에서 조선족문학을 ‘코리언 디아스포라 문학의 일부’이자 남북 ‘통일’ 문학의 중간 매개자로 전제하고,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골라 읽기’를 한 게 아닌지 반성하였다. 한국 중심주의의 선입견과 코리아문학을 하나로 통일하고 문화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당위가 학문적 접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

가령, 연변의 구전문예 「혈해지창」과 (북)조선의 정전 <피바다>를 둘러싼 남북의 시각차를 감안하면, 성급한 코리아(한겨레, 배달민족, 백의민족) 문화 통합(또는 통일문학)론이나 남북의 자기중심주의를 반성하게 된다. 코리아 남북 문학의 ‘통일’과 전 세계 코리언 디아스포라(이산), 나아가 코리아어권(Koreanphone, 코리아 어제, 한글 사용 가능자) 문학을 하나로 묶으려는 발상이나 담론이 아류 문화제국주의 위험⁵³⁾을 간과한 학자의 욕망이 아닐까.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 문학의 통일’ ‘한국문학의 세계화’ ‘코리언 디아스포라문학’의 시각에서 조선과 일본, 연변, 중앙아시아 한글 문학을 자기중심적으로 대했던 관행을 반성한다.⁵⁴⁾ 국문학연구 자체가 ‘근대적 자기중심주의’의 학문적 반영이라면 이른바 ‘한국문학’연구의 개념⁵⁵⁾과 범주 설정 상 국문학(연구)의 영토를 확장하

52) 북한의 대표 문예지 『(원전)조선문학』(1946~2005, 『문화전선』 『문학예술』 포함) 영인본과, 연변 문예지 『천지』 영인본(1951~2003, 『연변문예』 『연변문학』 포함) 대훈서적판을 구했던 당시 심정이었다. 그런데 비슷한 문제의식이 동료 학자들에게도 널리 공유되었다. 가령 “중국 조선족 문학에 대한 본격 조사와 연구는 이후 중국 조선족 문학의 담론을 한국 통일문학사를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송현호 외, 「머리말」, 『중국조선족문학의 탈식민주의연구』, 국학자료원, 2008 참조.

53) 이와 관련하여 시노폰(Sinophone, 華語語系, 중국어권) 문학 문화 담론이 지닌 중화주의적 위험성을 비판한 스수메이, 고헤림 외 역, 『시각과 정체성-태평양을 넘어서는 시노폰 언술』, 학고재, 2021; 임춘성, 「중국 근현대문학의 타자, 사이노폰 문학」, 『미래 세계어문학으로서의 한국어문학 연구의 모색: 국어국문학회 2021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집』, 국어국문학회(가상 회의), 2021.5.22. 참조.

54) 이해영·임명길, 앞의 글, 408면. “문화 한국”은 “문화 중국”의 모방일 뿐이다.

55) “국문학 연구 대상이 ‘한국문학’이라는 명제가 자명한지 의문이다. 한반도적 시각으로 이남의 한국

고 세계화하자는 욕망이 온당한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가령 연변(문학)을 대할 때 남북중(한국, 조선, 중국)의 자기중심주의와 통일지상주의의 당위를 앞세우지 않았는지 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연변 조선족(문학)이 관심을 받게 된 데는 중국의 동북공정, (남)한국의 디아스포라 담론, (북)조선의 항일혁명 담론이 서로 자기 문학예술 범주의 일부나 연장, 확장을 전제했다는 숨겨진 욕망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연변문학』 1998~99년치의 매체사적 급변을 분석하면 자본이 어떻게 민족과 문화를 전유하는지 향후 ‘통일/통합문학론’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한국은 1990년대 초의 북방정책 이후 한중친선 외교를 펼치고 해외동포 포용책과 이념적 학문적 개방을 급속도로 전개하였다. 그 결과 2000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국력이 나아지고 학문이 ‘근대화, 선진화’되면서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의 자기반성은 생략되었다. 가령 “연변 문학이 우리와는 수준이 한참 떨어지네, 북한문학처럼……” 식으로, 문학작품의 예술적 완성도에 대한 비평적 평가 전에 구별 짓기와 위계화, 암묵적 서열을 전제하지 않았는지 자기비판이 필요하지 않나싶다. 조선족문학이든 재일동포문학이든 북한문학이든 상관없이 한국문학 중심으로 “헤쳐 모여”한 것은 아닌지, 같은 말글로 소통 가능한 동포, 한겨레란 명분과... 실은 뒤에 숨겨진 ‘자본’의 힘으로, ‘서울중심주의’는 자명한 것이 아니며 돈의 힘도 팔호 속에 넣고 말 일이 아니다. 기존의 서울 중심 ‘디아스포라문학’ 담론과 평양 중심 ‘통일’문학, 기성세대의 통일/통합 당위론과 민족주의적 자기중심주의(자민족제일주의), 문화제국주의의 비판적 자기반성이 뒤늦게나마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통일의 당위와 디아스포라 담론의 숨겨진 욕망을 지양한 가칭 ‘코리아 문화사’의 지평을 열어놓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연변문학』 1998년 치 ‘명인작품’란과 ‘배달문학’란 방식의 병렬 편집 전략의 활용이 좋은 예일 터이다.

문학과 이북의 ‘조선문학’을 아울러 연구하는 코리아적 시각이 필요하다.” 김성수, 「한국-조선문학의 탈정전화와 숙청 작가의 복원 복권-코리아문화사 연구방법론」, 『미래 세계어문학으로서의 한국어문학 연구의 모색: 국어국문학회 2021 국제학술회의』, 국어국문학회(가상 회의), 2021. 5.22.; 김성수, 「코리아 문학의 탈정전화와 숙청 작가 서만일, 김창석의 복권」, 『민족문학사연구』 76, 민족문학사학회, 2021.8, 191~193면 참조.

연변 편집자의 기획으로 ‘한국, 조선, 연변’ 그리고 해외동포 작가의 작품을 싣고 연변 비평가가 합평하는 방식이다. 같은 방식으로 리회성(일본)의 「8월의 비」, 박미하일(까자흐스탄)의 「나비의 꿈」, 정세봉(중국)의 「빨간 ‘크레용태양」, 공령희(로씨야), 「T.B.두브롭스카야」, 이정희(까자흐스탄), 「그날」, 조운호(미국), 「나비의 춤」, 양원식(까자흐스탄), 「시선」, 정장(일본), 「사람이 되기까지」, 박미하일(까자흐스탄), 「기다림」, 최인선(미국), 「끝없는 길」 등도 코리아 문학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으로, 조기천의 「흰 바위에 앉아서」, 김관식의 「계곡에서」, 김성희의 「시내물」 등 물을 소재로 한 1950년대 삼국 시인의 산수시를 함께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들 시를 최삼룡의 비평 「흐르는 물을 읊은 시 3수」에서 소재적 공통점과 시작법의 차이 및 그 의미를 정리하고 있어 디아스포라 문학 비교의 좋은 예가 된다.

한편 1998, 99년 『연변문학』 지 ‘명인작품’란에 실린 윤동주, 김창걸, 리옥, 김학철, 김철, 리근전, 최남선 등의 사례는 남북중이 공감하는 디아스포라 문학의 예시가 된다.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김소월, 윤동주, 이육사, 김학철, 김석범⁵⁶⁾ 그리고 연암 박지원, 다산 정약용, 허균 등 남한국, 북조선, 재외 동포들이 모두 공감하는 작가와 작품부터 찾아 나서자. 단군신화,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아리랑>, 벽초 홍명희의 역사소설 『임궏정』 등 코리언이 공유한 상징적 존재를 더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코리아문학 문화사의 콘텐츠가 될 것이다. 단, 이들이 기존의 통일문학과 디아스포라와 변별되는 지점은 중심과 통합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데 있다. 코리언과 한글 사용자가 현재는 남북과 해외로 離合集散 처지지만 앞으로 會者定離를 기대하되, 굳이 통일, 통합해야 한다는 당위는 유보한 개념이다. 기존의 서울중심주의, 평양중심주의 기득권을 버리지 못한 ‘통일문학’⁵⁷⁾ 디아스포라(이산)문학, 배달민족문학, 백의민족

56) 자이니치(在日) 대표 작가로 제주 4.3항쟁을 그린 대하소설 『화산도』가 대표작이다.

57) 역사소설 『임궏정』처럼 남북이 자랑하는 문학부터 화학적으로 통합하자는 ‘상호상승식 통합론’부터, ‘e-Korea’ 같은 인터넷 플랫폼을 만들어 ‘해금, 숙청, 이산’ 작가까지 통 크게 포용한 ‘코리아한 겨레 디아스포라-한국어권(Koreanphone)’ 콘텐츠의 자유로운 소통장으로 활용하자는 ‘통일문학 2.0’까지, 20년 넘게 통일문학론을 주창했지만 분단-냉전체제 하 남북의 견고한 자기중심주의를 깰 수 없었다. 김성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 책세상, 2001.; 김성수, 「코리아문학의 통일·통합 (불)가능성」, 『통일과평화』 10-2,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8.12.; 김성수, 「남북한의 ‘통일문학’ 잡지와 통일문학선집의 비판적 분석」, 『상허학보』 58, 상허학회, 2020.2. 가령 (북)조선의 『통일문학작품전집① 통일되는 날에』(평양출판사, 2015)을 보면, 백인준, 「남녘의 봄」, 조기천, 「분노」, 강승환, 「한나산」, 조기천, 「항쟁의 려수」 등 남측 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남조선 비판

문학' 담론과 비슷하되, 어떤 중심(으로의 회귀)을 전제한 구심력보다 인터넷처럼 소통의 극대화, 무한 파생성과 원심력 등 미래로 열린 가능성을 두자는 것이다. 남북(한국-조선)을 포함한 전 세계 코리언이 처한 현실, 이산의 원심력과 통합의 구심력이 길항관계를 보이는 분단, 이합집산의 엄혹한 현실을 인정하되 상호 이질적인 것의 평화 공존, 이해와 소통에 주력하자는 말이다.

투고일: 2021.07.14

심사일: 2021.08.19

게재확정일: 2021.09.03

시'만 일방적으로 내세워 문학적 학문적 소통이 어렵다싶다. 반면 한국의 통일문학운동을 외롭게 선도하는 민족작가연합의 통일시집 『통일 아리랑 가는 길』(2021)을 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통일 시인으로 남북 주민 간 공감과 離合의 정서를 노래한 김규동, 김남주, 문익환, 박봉우, 신동엽, 이기형, 이동순, 채광석 등 8명을 들고 있어 기대된다.

참고문헌

- 장지민 편, 『천지』(영인본, 1951~2003), 대훈서적, 1993~2005(원본: 『연변문예』(1951~1956, 1974~1984), 『아리랑』(1957~1958), 『연변문학』(1959~1961, 1998~2003), 『연변』(1961~1966), 『천지』(1985~1997)), 『연변문학』 2007~2021(인터넷판)
- 김성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 책세상, 2001
- 김재용 이해영 엮음, 『귀향과 이산』, 소명출판, 2021
- 김중희 편, 『중국조선족문학 디아스포라문학』, 국학자료원, 2016
- 송현호 외, 『중국조선족문학의 탈식민주의연구』, 국학자료원, 2008
- 스수메이, 고헤림 외 역, 『시각과 정체성-태평양을 넘어서는 시노폰 연술』, 학고재, 2021
- 연변조선족자치주 개황 집필소조, 『연변조선족자치주 개황』,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4
- 왕더웨이, 김혜준 역, 『시노폰 담론, 중국문학』, 학고재, 2017
- 이명재 외,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국문화사, 2004
- 임춘성, 『포스트사회주의 중국의 문화정체성과 문화정치』, 문화과학사, 2017
- 정덕준 외, 『중국조선족문학의 어제와 오늘』, 푸른사상, 2006
- 조성일 권철, 『중국조선족문학통사』, 이회문화사, 1997
- 김성수, 「‘항일혁명문학(예술)’ 담론의 기원과 주체문예의 문화정치」, 『민족문학사연구』 60, 민족문학사학회, 2016
- _____, 「연변 문예지의 역사와 ‘코리아 문학’ 재구성」, 『국제한인문학연구』 29, 국제한인문학회, 2021
- 김은아, 「『연변문예』 소재 중국 조선족 소설 연구-문화대혁명 이전 소설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18, 국제한인문학회, 2016
- 김정은, 「조선의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의 뿌리를 더듬어」, 『중한언어문화연구』 9, 천진: 천진사범대 한국문화연구중심, 2015
- 김중희, 「한민족 문화권의 새 범주와 방향성」, 『국제한인문학연구』 1, 국제한인문학회, 2004
- 문려화·오상순, 「조선족문학과 고려인문학 발달단계 비교」, 『현대문학연구』 52,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 윤의섭, 「재외 이주민 정체성의 불확정성과 이중성의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27, 한중인문학회, 2009
- 이영미, 「북한문학 연구와 텍스트의 해석-남북한 ‘통합’문학사에서의 텍스트 《피바다》」, 『한국현대문학연구』 33, 한국현대문학회, 2011
- 이해영, 「연변의 문학과 그 문학적 기억」, 『한중인문학연구』 37, 한중인문학회, 2012

- 이해영 · 임명걸, 「방법으로서의 코리아어 어계 문학(Koreanphone) 연구: 華語語系文學 담론이 주는 계시」, 『한국현대문학연구』 57, 한국현대문학회, 2019
- 임춘성, 「중국 근현대문학의 타자, 사이노폰 문학」, 『미래 세계어문학으로서의 한국어문학 연구의 모색: 국어국문학회 2021 국제학술회의』, 국어국문학회(가상 회의), 2021
- 정수자, 「문화대혁명기 조선족 시의 탈식민주의적 성격」, 『한중인문학연구』 18, 한중인문학회, 2006
- 정영진, 「중국 조선족 문예규범의 수립과 『연변문예』」, 『겨레어문학』 59, 겨레어문학회, 2017

The Unification of Literature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Desire for the Korean Diaspora Discourse

— Media Historical Issues in Yanbian Literary Magazine

Kim, Seong-Su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media historical issues of Chinese ethnic Korean literature magazines in Yanbian area. Through this, it will reflect on the legitimacy of the “unification” agenda of literature between the two Koreas and examine whether the “diaspora literature” discourse is free from the desire to expand the territory of Korean literature. As an alternative to this reflection, we propose inter-Korean equal communication of the Korean diaspora and “Koreanphone” literature.

With this awareness, we analyzed media historical issues in the literary magazines *Yŏnbyŏn munye*(Yanbian Literature and Art, 1951), *Ch’ŏnji*(Heaven and Earth, 1985) and *Yŏnbyŏn munhak*(Yanbian Literature, 1998). It also explored the ethnological identity of Chinese ethnic Korean literature by analyzing the media historical issues of the magazine’s media contents cross-sectionally. As a result, Yanbian’s literary magazine started out as a socialist propaganda media, but it could be seen that Yanbian’s cultural heritage culture, ethnic Koreans’ literary identity, and foreign relations changed from pro-North Korea to pro-South Korea.

The identity of Yanbian literature magazine serves as a window for cultural “communication” of “Chinese-North-South Korea” on the basic premise of the Chinese authorities’ policy propaganda,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literary identity of the Chinese ethnic Koreans. A good example is the controversy over the North Korea’s revolutionary opera “Blood Sea(피바다)” created by Kim Il-sung and the amateur play script “Song of Blood(혈해지창)” by the Crow(pen-name) in the *Yŏnbyŏn munhak*(1959). Ignoring this fact and trying to integrate Chinese ethnic Korean literature as a medium

for unification of inter-Korean literature or as part of overseas Korean diaspora literature discourse are a kind of Seoul centralism's desire, so self-reflection is essential.

Key Words : Chinese ethnic Korean Literature in Yanbian, Literary journals, *Yŏnbyŏn munye*, *Ch'ŏnji*, *Yŏnbyŏn munhak*, Media Historical Issues, Korean diaspora literature, Unification literature, Seoul centralism, "Song of Blood (혈해지창)"

